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가능성

성수기 대비한 재고 확보 수요로 ... 거시경제 불확실성 해소도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영업실적 전망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종목의 주가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증권 전문가들이 3월20일 주장했다.

동양증권 박현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1/4분기 영업실적 부진 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만큼 현재 주가가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어 LG디스플레이를 다시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2/4분기부터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 확보가 본격화된다”면서 “거시경기상의 불확실성 해소 덕분에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TV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의 1/4분기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더 낮아져 161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LIG투자증권 최도연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2012년 영업실적이 1/4분기를 저점으로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OLED TV 출시 이후 디스플레이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식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1/4분기에 영업적자를 보이겠지만 2/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89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LG디스플레이는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뉴아이패드 패널 공급이 시작되고 TV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패널 재고축적 수요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해 비중확대를 유지하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등이 유망종목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0>